

만나뵈시다 - 조각전 여는 황지우 시인

# 불심·시심 조형언어로 조화

9일~21일 학교재 화랑서 20여작품 전시  
조각시집 '저물면서 빛나는 바다'도 펴내

83년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로 시단에 충격을 던져줬던 황지우씨(서울대 미학과 교수)가 2년간에 걸친 조각작업을 관훈동 학교재 화랑에서 선보이고 있다.

9일부터 21일까지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 전시에서는 '우리의 시대의 자화상'과도 같은 황씨의 조각작품 20여점을 만날 수 있다. <작품사진 16면> "근래 몇년 동안 도무지 글이 써지지 않았습니다. 생(生)을 동양 탕진해 버린 것 같은 고갈의 느낌이 나를 결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황씨의 조각에 대한 물음, 그러나 그가 '영동한' 작업은 스스로의 공허감을 이겨내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란 설명이다. 이 전시회에 내놓은 작품중 '해인(海印)'과 '저물면서 빛나는 바다(1)'은 황씨의 불교적 심미안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해가 지는 서해바다, 그 위에 놓여진 불두(佛頭)는 울

고 있다. 부처님의 눈물로 가득찬 바다 위로 해가 지는 모습을 통해 황씨는 저물면서 빛나는 바다를 지키고 있는 셈이다.

황씨의 시가 인간의 삶 속의 가장 가까운 것에서 출발되었듯 그의 조각작품도 보다 원형적인 것에서 시도된 것들이다. "가장 가까운 것에서 먼 것을 찾으려 했을 뿐"이란 황씨의 의지는 '가슴과 등의 거리'라는 지구를 한바퀴 돌아온 거리를 연상시킨다. 그런 황씨의 상상력이 작품 '해인'에서 미화사 대웅전을 육체적 갈등(배설, 상욕, 수치심 등)의 이미지로 대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황씨는 이번 전시와 매맞춰 조각작품과 시를 묶은 조각시집 <저물면서 빛나는 바다>도 펴냈다(학교재, 1만2천원). 2년의 작업을 세상에 내놓은 황씨는 전시준비에 지쳤다면 장례식을 준비한 느낌이란 극단적인 피로감도 내보냈다.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면서 쓸수록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몇번을 더 죽어야 그 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임연태 기자)



◇조각으로 새로운 예술영역을 다지는 황지우시인.

## 사찰 건축美 렌즈에 담아

관조스님, 18일까지 서남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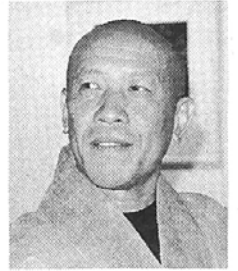
"사진은 문맹자와 어린이는 물론 외국인에게 언어의 장벽을 넘어 그 나라의 문화와 자연을 얘기하는 가장 광범위한 집합언어죠."

15여년간 승가의 일상생활과 자연미학을 영상예술로 표현해온 관조스님이 오는 18일까지 서남미술관에서 사찰주위 자연의 아름다움과 한국사찰의 화려한 구조 장엄을 선보이는 7번째 불교사진전을 갖는다. <작품사진 16면>

스님은 사진이 가장 보편적인 포교방법이라는 생각으로 <승가> <승가> <일반> 등 7권의 사진집 발간에 이어 우리문화보기 시리즈 첫째권 <대웅전>을 발간했다.

"전통사찰 건축구조는 한국 미술사를 대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역사적 흐름에서도 방치돼 사라져가는 불교문화를 한껏 소중히 담아 문해 버릴 수 있는 불교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합니다."

18개 전국 대소사찰 대웅



◇관조스님

전 건축이 보여주는 구조장엄을 해부학적으로 포착한 사진 95점을 담고 있는 사진집(116면)은 전면 컬러판으로 국·영문 해설까지 곁들여져 있어 해외에 불교문화를 알리려는 스님의 굳은 의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스님은 이 한편의 사진집으로 독자들에게 묻고 있다. "한국사찰 건축구조의 처마, 추녀밑 공포, 담장, 조각상, 천장, 벽화에 내포된 부처님의 진리가 보이세요?"

(도필선 기자)

**가야산 4계절 유화전**  
최학노씨 10일부터 덕원미술관

가야산 해인사를 유화로 그린 최학노씨의 작품이 10일부터 16일까지 인사동 덕원미술관(723-7771)에서 전시된다.

"가야산 해인사 풍경"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서는 해인사의 4계절을 환상적인 기법의 붓터치로 느낄 수 있다.

가야산 전경과 해인사 일주문, 탑돌이 등을 캔버스에 담아낸 최학노씨는 "가야산 해인사 풍경전으로 나 개인에게 부과된 책무를 가늠해 본다"고.

최씨는 24일~29일까지 대구 대백프라자에서도 전시를 갖는다.

(작품사진 16면)



60년전인 1936년 영천 은해사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대종포교를 위한 공연을 했다. 사진의 2963년은 북방 불교로 지금 사용하는 불기로 따지면 2479년에 해당된다. 공연의 내용은 확실치 않지만 일본식 의복과 한·일승려, 예술단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제공·정한기교수(동국대)>

1936년 춘파일... 이해사의 정거장

## 성우스님 인도기행 시집 '연꽃 한송이' 출간

풀잎 하나에도 인연이 있음을 실감했구나

그때 마야부인이 무우수 나뭇가지 붙들고 아기를 낳으셨으니 그 일로하여 뭇 중생들이 성지라 이름하누나.

성우스님은 부처님의 탄생지 룸비니동산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스님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펴낸 시집 <연꽃 한송이>(불광출판부)는 인도성지를 다니며 느낀 단상들을 시어로 엮어놓은 것. "누구나 삶은 번뇌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스님이 이 시집을 낸 동기이다.



## 지범스님 찬불명상곡 '올려퍼진다'

21일 제주 문예회관

지범스님의 다섯번째 음반 '남게로 가오나' 출판기념 찬불명상곡 발표회가 오는 21일 오후3시 제주도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발표회에서 지범스님은 새 음반에 담은 노래들을 부른다. 또 연꽃합창단, 우담바라어린이합창단과 불자수가 한명숙, 하운주, 조영근씨가 우정 출연한다.

**우수작 3편 발표**  
성철스님 사리탑 공모

성철스님 사리탑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원주스님)는 지난해말 성철스님 사리탑 설계공모, 지난 1일 입상자를 발표했다.

총 22개 접수작품중 당선작 없이 △김준배(주)건축(이상) △우경국(예공건축) △정기호(성균관대 조경학과)가 우수작에 선정.

성철스님 사리탑건립추진위원회는 "설계공모의 취지에 못미치는 작품이 다수로 당선작없이 우수작 3편과 가작 2편만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정숙·방자경씨 선정 불교아동문학 신인상**

한국불교청년문화진흥회(이사장·박용열) 산하 한국 불교아동문학회의 제2회 불교아동문학신인상에 방자경씨와 박정숙씨가 각각 선정됐다.

**목어의 새로운 해석 김한창스님 조각전**

회화와 조각으로 불교의 정

## 은석국교 김종민군 대상 서울불청연꽃노래잔치

대불청정화서울불교청년회(회장 성무경)가 지난 30일 개최한 제7회 연꽃노래잔치를 개최, '부처님이 그리워'를 부른 은석국교 김종민군이 대상 불청위원장을 수상했다.

총 1백70명이 참가한 이날 노래잔치에서는 정각사 심민진양, 은석국교 김미리내양이 각각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은석국교 김종민군 대상 서울불청연꽃노래잔치

대한불교찬불가제정위원회(위원장·정용우)는 제4회 찬불가, 불용가요, 불교가요, 판소리 사설 가사 현상공모 입상자를 발표했다.

찬불가부문: 서화진(새벽염불), 박혜영(회향의 노래) 김명숙(반야의 노래) △불용가요 부문: 한재수(부처님 은혜), 전화진(속리산) △불교가요부문: 남미숙(우리 유치원), 인금숙(봄이 왔어요), 김미영(불교유치원), 김옥애(연꽃가에서).

## 36개단체 1천2백여명 佛音합창제 '환희심'



김정자씨 불교합창단원회 회장

"뜻깊은 자리에 부처님의 법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 우리 단원 모두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지난 29일 여의도공장에서 형형색색의 고운 한복차림에 불음을 전한다는 자긍심으로 땀을 뿜은 36개 단체, 1천2백여명 합창단원의 목소리를 한데 엮어낸 불교합창단연합회 회장 김정자씨.

5만 불자가 한데 모인 곳에서의 단원들의 노래는 제등행렬에 나서는 불자들에게 법어를 가득하게 채우는 동시에 삶에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의 가슴을 촉촉히 적시기에 충분했으리라 생각됩니다"고 그녀의 환희심을 전한다. <끝>

## 경북문화재 圖錄 출간 1천5백여점 집대성

경북지역의 문화재 1천5백여점을 컬러사진과 자료로 집대성한 '경북문화재도록(圖錄)'(동해문화사 펴냄)이 출간됐다.

2년여에 걸친 준비작업 끝에 지방 문화재도록으로는 처음으로 이 책지는 분포 지역별로 국가지정문화재등 설명을 곁들인 원색 도판, 영문도판 등과 함께 실고 있다.

## 전통민속 '만석중 놀이' 서울놀이마당서 재현

전통민속놀이 '만석중놀이'가 지난 6일 서울놀이마당에서 재현됐다.

만석중놀이는 고려시대부터 부처님 오신 날 연등행사가 끝난 후 펼쳐던 일종의 그림자 인형극으로 전통공예연

체 '우리마당'이 기획, 재현하게 된 것. 이날 공연은 민속학자 심우성씨에 의해 처음 발굴한 것을 재현한 것으로 만석중(巫窟)과 십장생, 용, 잉어 등이 차례로 등장하고 퇴장하면서 공수레공수거 인

생의 무상함과 불교의 윤회상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마당의 이번 공연은 83년 심우성씨의 첫 재연 이후 해인사 초청공연, 일본 오사카 국제인형극제초청 공연에 이은 네번째 공연.

### 으뜸공양

군·경찰·병원 등에 현대불교신문을 보냅니다

**법공양을 받으시는 분들**

▶마산시 국립마산해병병원 관해사 ▶창원시 경남지방경찰청 경순실 ▶파주2포대 최철규 ▶파주 황세진 상병 ▶파주 이장 상병 ▶원주시 시립복지원 ▶김천시 백준목 ▶대전시 오진수 ▶양주군 이도한 ▶광명시 양광모 ▶안성군 한상열 ▶종로구 박영배 ▶서초구 이윤숙 ▶인천시 석재원 ▶해의 리승준 ▶구로구 김윤희 ▶부안군 김은철 ▶송파구 김성운 ▶용산구 정창명 ▶성북구 원문스님 ▶성남시 김명주 ▶안산시 박정은 ▶수원시 신종일 ▶진해시 정기룡 ▶부산시립박물관 나동복 ▶관악구 장영석 ▶서초구 송연희 ▶청주시 박영훈 ▶진주시 정정백 ▶서초구 장성욱 ▶성북구 주한수 ▶남양주시 907부대 ▶서초구 신상아 ▶서초구 박은혜 ▶서천군 구자호 ▶부산시 김종욱 ▶부산시 이경욱 ▶부산시 박형련 ▶구미시 이창현 ▶구로구 강일규 ▶성북구 김진재 ▶성북구 이은영 ▶성북구 이정자 ▶용산구 박치현 ▶중구 박세정 ▶대전시 박홍구 ▶대구시 박성형 ▶종로구 박민식 ▶부산시 박남수 ▶부산시 박희영 ▶청주시 박래철 ▶경주시 박재우 ▶송파구 박준형 ▶강동구 박광석 ▶동대문구 박병식 ▶중구 박영수 ▶과천시 박인각 ▶송파구 박인규 ▶도봉구 박승복 ▶대전시 박종희 ▶인천시 박인준 ▶창원대 불교학생회 ▶성동구치소 손후익

**법공양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

▶신정숙 2 ▶백숙자 4 ▶유현숙 4 ▶이지숙 2 ▶이희정 2 ▶이성욱 1 ▶정낙순 1 ▶이원상 2 ▶진원 스님 4 ▶김영정 4 ▶정창영 2 ▶김민국 12 ▶김상영 15 ▶한상민 10 ▶정상열 20 ▶여화영 1 ▶김종백 1 ▶안상호 1 ▶한마음선원 울산 지원 30 ▶김정호 4 ▶유성숙 2 ▶정은영 1 ▶윤승열 40 ▶정성호·이경미 5 ▶김동각 60 ▶정자경 4 ▶고성일 20 ▶홍영자 16 ▶홍일표 1 ▶조정희 2 ▶송연숙 4 ▶전민선 10 ▶신영진 4 ▶윤서원 5 ▶이영희 15 ▶김성 4 ▶김은주 4 ▶정영도 1 ▶박준영 1 ▶혜슬 스님 3 ▶최영봉 4 ▶박재원 6 ▶이형호 4 ▶최창숙 1 ▶주용원 2 ▶설진웅 1 ▶박향옥 6 ▶양세모 3 ▶김희자 4 ▶양정록 5 ▶김추자 5 ▶김덕순 2 ▶김경숙 1 ▶김영수 3 ▶복덕규 2 ▶한마음선원 부산 지원 2 ▶심진희 5 ▶박덕희 1 ▶허선향 2 ▶김남경 5 ▶김치훈 5 ▶서순자 5

총: 398구좌

• 보시 중의 으뜸은 법보시, 법보시에 동참해주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